

전북해역 보름달물해파리 주의특보 해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와 국립수산물과학원(원장 우동식)은 전라북도 전 해역에 발령되어 있던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9월 27일(수) 14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.

보름달물해파리는 올해 5월부터 전북,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6월 8일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되었고, 전북해역은 6월 20일에 경계단계로 상향하였다. 7~8월 장마 이후 전북해역의 해파리 출현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, 9월 중순부터는 보름달물해파리 출현이 특보발령 기준* 이하로 나타났다.

* 보름달물해파리 특보 발령기준(100m²당): (주의단계) 성체 5마리/ (경계단계) 성체 20마리

** 전북해역 특보 발령 현황: 주의(6.8) → 경계(6.20) → 주의(8.10) → 해제(9.27)

해양수산부는 올해 해파리 특보 발령과 동시에 ‘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 대책 및 위기대응지침’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,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. 지자체에서는 보름달물해파리 561톤을 제거하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. 또한,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전라북도와 시·군, 민간 등의 조사·관찰(모니터링) 결과를 수집·분석하여 해파리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였으며, 이와 관련된 정보를 누리집(www.nifs.go.kr)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다.

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은 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파리 출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올해 전북해역의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건 발생하였으나, 어업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.”라며, “현재 주의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전남 및 경남해역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예찰을 지속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30)
	수산자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정은주 (044-200-5542)
	해양정책관	책임자	과 장	권영규 (044-200-5250)
	해양레저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안숙현 (044-200-5253)
	국립수산과학원	책임자	과 장	한인성 (051-720-2210)
	기후변화연구과(수산재해대응팀)	담당자	연구관	민병화 (051-720-2752)



참고

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해역 및 보름달물해파리 사진



<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해제 해역>



보름달물해파리

해파리를 발견하면 꼭 신고하세요!



모바일 웹 신고

여러분의 신고로 수집된 데이터는
해파리 출현정보로 이용되어
수산 피해와 해수욕객 쓰임 방지에
활용되고 있습니다.

신고 방법 1

- QR코드 접속
QR코드를 찍어보세요!



신고 방법 2

포털사이트(구글 등)에서 “해파리 신고”검색하여
“해파리정보시스템-국립수산물과학원” 페이지로 접속하여 “해파리 신고 web” 클릭

모바일 접속 경로



※ 동영상 신고는 jellyfish@korea.kr 메일로 첨부

